

박동춘의 茶 이야기

㉔ 茶聖 초의 선사

초의 선사, 조선 후기 차문화 중흥조

초의 선사(草衣 禪師, 1786~1866)는 대흥사에 전해진 선차를 이어 발전시켜 차 문화를 중흥했다. 이런 공로는 그를 한국의 다성(茶聖)이라고 칭송한 이유로, 당나라 육우(陸羽)가 차문화에 끼친 공적과 비견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차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는 좋은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 구축 및 생산 기반의 확충에 달렸다. 이외에도 차 문화의 질적 수준은 바로 차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미적 감수성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화 흐름의 변천 과정에서 본다면, 조선 후기 차문화가 일시적인 중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동력은 초의에 의해 좋은 차가 생산될 수 있었고, 이를 향유한 문인들의 문예적인 취향이 높았다는 점에서 기인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초의선사와 교유했던 경화사족들은 그를 '전다박사'라 칭송하여 그의 차에 대한 식견과 초의차의 품색을 높게 인정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의 차에 대한 연구는 대략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는 대략 1830년경 〈다신전〉을 편찬한 이후 본격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가 밝혔듯이 〈다신전〉의 편찬이 수홍 사미가 다도를 알고자 했으며, 총림에는 조주의 끽다전통이 있었지만 다도를 모른다는 점에서 구체화된 것이며, 당시 대흥사 승려 사이에서 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사원 차의 품질 개선을 위해 명대에 유행했던 잎차의 제다법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청대에 보편화된 차의 종류가 잎차였던 것도 고려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무렵 대흥사 사중에서는 덩이차(병차)와 잎차를 함께 만든 경향을 보였고, 초의선사의 제다는 제다법의 이론적 완성과 제다가 숙련됨에 따라 좋은 잎차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였다. 그의 제다 완성도는 1842년경에야 다삼매(茶三昧)의 경지를 드러낸 차를 완성하였는데, 대략 1838년경 만든 그의 잎차의 품질은 추사 김정희에 의해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나에게 보낸 차의 품질은 심폐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만큼 좋지만, 매번 차를 덖는 방법이 조금은 지나쳐서 차의 정기가 사그라진 듯합니다. 만약 다시 만든다면 (차를 덖을 때) 불의 온도에 주의하심이 어떨지요(茶品荷此另存 甚覺醒肺 每炒法稍過 精氣有銷沈之意 若更再製 輒戒火候 如何如何)

1838년은 초의가 〈다신전〉을 편찬한 지 8년이 지난 후로 그가 어떤 차를 만들기에 주력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추사는 초의가 만든 차를 덖는 법(炒法)"이라고 한 점이 눈에 띈다. 초법이란 바로 뜨거운 무쇠 솥에서 찻잎을 덖어내는 산차 제다법이다. 당시 초의는 〈동다송〉을 저술한 지 한 해를 보낸 시기이지만, 차를 덖을 때 불의 강약 조절에 미숙함을 드러내 정기가 사라진 차를 만들었다는 것이 추사의 평가이다.



초의차를 전승한 응송 박영희 스님이 대나무 사이에서 찻잎을 따는 모습.

1830년경 '다신전' 편찬 뒤 茶연구 본격화
1842년 '茶三昧' 경지…'덖음 입차' 제다해

그렇다면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품질이 우수한 차는 좋은 찻잎을 얻는 것에서 시작되며, 그다음의 조건은 화후의 문제이다. 바로 차를 덖거나 말릴 때의 불의 강약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다. 불의 조절은 제다인의 통찰력과 적절한 순간을 판단할 수 있는 순발력과 결단에 의해 찻잎의 익은 정도의 극점을 간파하는 것이다. 참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차는 수행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수행자는 참선을 통해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므로, 그 간극의 시공간을 장악할 수 있기에 완성도 높은 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의는 어떤 방법으로 차를 만들었을까. 그의 제다법은 〈동다송〉 '조다편'에서 살펴볼 수 있다.

새로 딴 찻잎에서 묵은 잎을 가려내고 뜨거운 솥에서 덖어낸다. 솥이 뜨거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찻잎을 넣고 급히 덖어내는데 이때에 불을 늦추지 않는다. 알맞게 덖어지면 꺼내서 대자리에 놓고 여러 번 가볍게 둥글리듯이 비비고 털어서, 다시 솥에 넣고 불을 점점 줄이면서 덖는다. 덖고 말리는 것에는 법도가 있다. 차를 만드는 데에는 묘하고도 은미함이 있으니 말로 드러내기 어렵다.(新採 揀去老葉 熱鍋焙之 候鍋極熱 始下茶急炒 火不可緩 待熟方退 徹入 中 輕團枷數遍 復下鍋中 漸漸減火 焙乾爲度 中有玄微 難以言顯)

이처럼 초의의 제다 공정은 찻잎 선별하기-첫 덖음(초살청)-비비기(유념)-비빈 찻잎 떨기-다시 말리기(재건)-밀실에서 말림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초의차의 공정 과정은 범해 스님의 '초의차'에서도 언급하였다.

맑은 날, 첫 곡우에(穀雨初晴日)
아직 피지 않은 황아 잎을(黃芽葉未開)
깨끗한 솥에 정성을 다해 덖어서(空鐺精炒出)
밀실에서 말리네.(密室好乾來)
측백나무 그릇 둥글고 모나게 묶어서
(栢斗方圓印)
대나무 껍질로 잘 포장했네.(竹皮苞裹裁)
단단히 간수하여 밖의 기운 막으니(嚴藏防外氣)
찻잔에 가득히 향이 뜨는구나.(一椀滿香回)

범해 스님의 다시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 구에서 "맑은 날, 첫 곡우에/ 아직 피지 않은 황아 잎"이라 하였다. 이는 채다했던 시점과 찻잎의 상태, 즉 일창일기(一槍一旗)를 말한다. 두 번째 시구는 "깨끗한 솥에 정성을 다해 덖어서/ 밀실에서 말리네"라고 하였다.

이는 제다의 공정 과장으로, 솥에서 차를 덖고, 다시 재건한 후 재차 밀실에서 말린다는 것이다. 밀실은 바로 온돌방을 말한다. 세 번째 구는 차의 포장 방법으로 "측백나무 그릇 둥글고 모나게 묶어서/ 대나무 껍질로 잘 포장했다"라고 하였다. 측백나무 그릇을 차 통이며 죽순 껍질을 이용하여 차를 저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범해 스님이 언급한 초의차는 덖음 잎차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끝〉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㊻

1. 불교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
②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은 보살이 중생을 섭수하는 법이다.
③ 불교의 핵심정신은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자리이타 정신이다.
④ 중생은 지옥, 화생, 난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육도를 윤회한다고 본다.
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연기적 관점이다.

해설 : 육도윤회와 관련한 문제이다. 중생이 윤회하는 여섯 갈래의 길을 육도라고 하며, 이 육도의 안에서 윤회하기에 육도윤회라고 한다. 육도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여섯가지를 말하며 때로는 아수라를 천상에 포함시켜 오도로 표현하기도 한다. 화생과 난생은 화현하여 태어나는 부류와 알에서 태어나는 부류라는 뜻으로 태어나는 형식에 따라 중생들을 구분하는 사생을 말한다. 사생이란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의 네 가지가 있으며 태는 자궁을 통해 태어나는 것, 습생은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등이다.

2. 불교에는 수많은 부처님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受記)를 받고 56억 7천만 년 후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중생을 구제하기로 예정된 부처님은?
① 연등부처님 ② 미륵부처님 ③ 아미타부처님 ④ 약사여래부처님
⑤ 비로자나부처님

해설 : 미륵부처님이다.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三世) 및 대승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즉 타방에도 현재 부처님들이 계신다고 본다. 연등부처님은 과거의 부처님으로 석가모니부처님이 전생에 보살이실 적에 수기를 주신 분이다. 아미타부처님과 약사여래부처님은 극락세계와 유리광세계, 즉 타방에 계신 부처님들이시며, 비로자나부처님은 법신불로 부처님의 몸을 불신이라고 하는데 진리로서의 몸인 법신불, 수행의 공덕으로서의 몸인 보신불, 우리에게 오신 화신불의 세 가지 몸이 있다고 한다. 이를 삼신불이라고도 한다.

3. 대승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수행자 중심의 가르침이다.
② 개인의 해탈(解脫)을 중시하였다.
③ 자신의 엄격한 종교성을 강조하였다.
④ 아라한(阿羅漢)의 경지를 최고 이상형으로 삼았다.
⑤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 불교이자 사회 불교로 발전하였다.

해설 : 대승불교는 수행자 중심을 벗어나 모두를 위한 가르침이며, 개인만이 아닌 모든 중생의 성불을 목표로하고, 다양한 수준의 중생들에게 알맞은 여러 가지 방편을 자유롭게 구사하며, 부처님의 경지를 최고 이상형으로 삼았다. 그럼으로 대승불교는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 불교이자 사회 불교로 발전해나갔다.

4. 대승불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원전후에 발생하였다.
② 소승불교에 반대되는 말이다.
③ 재가신자를 포함한 혁신적인 불교이다.
④ 자기수행과 함께 사회와 중생을 구제하자는 불교이다.
⑤ 재가중심의 불교에서 출가중심의 불교로 전환된 것이다.

해설 : 대승불교는 기원전후에 발생하였으며, 기존의 불교를 소승이라고 하며 자신들의 다름을 강조하였다. 재가신자를 포함한 혁신적 운동이었으며, 자리이타를 함께 추구하는 불교였다. 대승불교의 큰 특징은 출가중심의 불교를 재가와 함께하는 불교로 전환한 것이다.

5. 대승불교는 원력의 불교라고 일컬을 만큼 서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 서원을 세우는 것을 발원(發願)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욕망으로 물든 삶을 나눔과 배려의 삶으로 전환한다.
② 성취의지를 표현하기보다는 구원과 복의 성취를 추구한다.
③ 대립과 경쟁보다는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을 추구한다.
④ 보편타당한 삶의 지향점을 찾게 하는 인생의 중요한 덕목이다.
⑤ 끌려다니는 업생(業生)이 아니라 원생(願生)으로 나아가게 한다.

해설 : 발원은 원력을 세운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삼보 앞에서 맹세하는 것으로, 삼보께서도 내가 세운 원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용기와 도움을 요청드리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삼보의 도움을 기복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나의 서원을 성취하기 위한 가피로서 여겨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이기적 욕망에 기초한 것을 서원이라 하지 않으며, 불교에서 서원은 자리이타의 마음과 연결되는 윤리적, 주체적 목표라 할 수 있다.

정답 : 1. ④ 2. ⑤ 3. ⑤ 4. ④ 5.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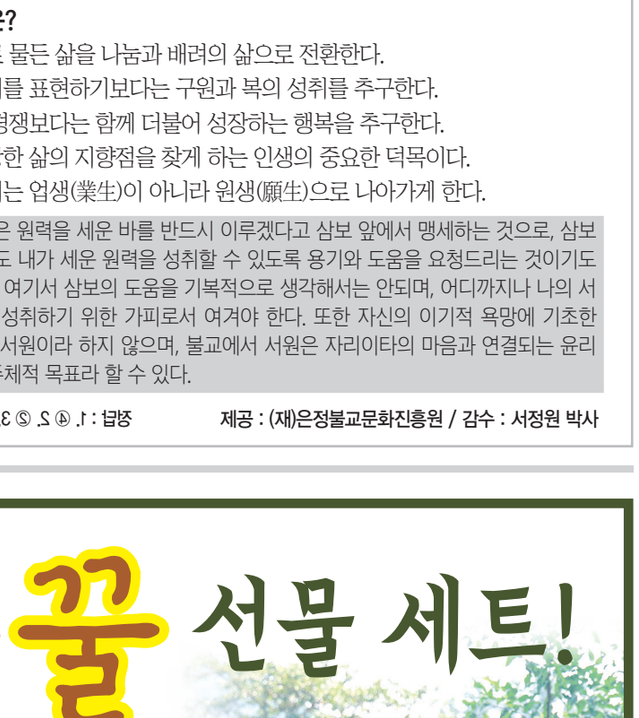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토종꿀 선물 세트!

지친 일상 속에서 자연의 달콤함을 선물하세요

- 전통 산사의 자연 조건에서 생산된 토종꿀로 연말연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괴산의 낙영산, 보개산에서 얻은 신선한 꿀입니다.
-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대량주문협의가능)
주 문 : 043) 297-2514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